

마진 절반 떴가는 배달앱... 고달픈 자영업자

앱 주문+온라인 결제시 수수료로 음식값 15%

영세업체 울며 겨자먹기 이용... "남는게 없어"

"남는게 없어요. 남는게..."
광주의 한 대학가에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45)씨는 "배달 주문이 들어와도 무조건 반가워할 수는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배달전문 애플리케이션(앱)이 확산하면서 이제는 전화로 주문하는 고객의 수를 월등히 뛰어넘었다. 문제는 이 앱으로 주문을 할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탓에 마진이 없다는 것이다.

박씨는 "대학가라는 특성 때문에 전화보다 앱으로 주문하는 고객이 많다"며 "차라리 전화주문을 하면 서비스나 할인 혜택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음식배달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나오

고 있다. 온라인결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결제 수수료를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지역 배달업계에 따르면 A배달앱의 배달주문 증개수수료는 12.5%다. 여기에 고객이 앱에서 바로 온라인 결제를 할 경우 외부결제수수료(온라인결제·PG 수수료)가 3.9% 추가된다.

예를 들어 짜장면 두 그릇을 1만원에 배달할 때 마진이 3000원 남는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만 1646원(16.46%)이 붙는다. 결국 업주 손에 남는 돈은 1354원으로 배달앱 본사보다 수익이 더 적다.

또 다른 B배달앱은 증개수수료 2.75%에 외부결제수수료가 3.58%로 그나마 저렴한 편이다. C배달앱은 증개수수료 없이 기본 월광고료 8만8000원을 낸다.

구분	A사	B사	C사
증개수수료	12.5	2.75	0
외부결제 수수료	3.96	3.85	3.3
광고료	별도	별도	별도

언뜻 저렴해보이지만 실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증개수수료가 없는 C사의 경우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슈퍼리스트'나 '울트라콜' 등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상품을 확대했다. 고객들이 앱을 사용할 때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위치에 업체가 노출되는 대신 광고료를 받는 형태다.

이 광고는 각 지역업체가 경매를 통해 광고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광주지역 주요 상권의 평균 경매가는 한달 60~8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앞서 상권경쟁이 치열한 대학가의 경우 경매가가 400만원에 뛰어넘을 때도 있다.

광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음식배달 마진율을 20~30% 잡고 있는데 수수료가 15%에 달해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규모가 큰 가게는 비싼 광고비를 내고 매출을 올리면 되지만 영세한 업체는 있는 손님마저 뺏길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화주문 대신 배달앱을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료가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달 아 온라인결제 비율이 증가하면서 카드 수수료율보다 온라인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소액결제나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에 나섰다"며 "온라인결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91.75 (-33.64) ↑ 금리 (국고채 3년) 2.28% (+0.03)
- ↓ 코스닥 858.22 (-41.25) ↑ 환율 (USD) 1088.50원 (+8.80)



광주국세청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다짐대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형)은 5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지난 1일 개정 고시된 '납세자권리현장'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날 '납세자권리현장' 준수를 위한 다짐대회'는 광주청 소속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권리현장을 성실히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보호 되도록 결의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현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한 생애를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은행 '생명 나눔' 임직원 헌혈 행사 기부금 출연 소외이웃 돕기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5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4층 연수실에서 본점 임직원과 광은비즈니스 등 입주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에 부족한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고, 광주은행 임직원 1인당 은행 기부금 1만원을 출연, 지역 조손가정 아동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해 헌혈도 하고 소외계층도 돕는 1석 2조의 기부행사로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헌혈 나누기 행사가 지역 내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산단내 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단속

이번주부터 광주·전남 주요 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은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채굴장 색출에 나섰다. 제조업체가 아닌데도,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 들어와 운영되는 만큼 채굴장 운영이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산단공은 이번주부터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국가산단을 비롯해 대불산단, 여수산단, 광양산단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굴장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채굴(mining)은 컴퓨터를 24시간 켜두고 채굴 프로그램을 돌려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기료 부담 등을 감안해 가정용 대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전기를 몰래 써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산단공은 앞서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입주업체, 심야 전력 사용업체 등을 파악해놓은 상태다. 산단공은 이번 주 산단별 입주담당자를 투입, 이들 업체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산단공 광주전남본부는 실태 파악을 거쳐 불법으로 산단내에 들어와 시설을 가동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업체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이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353일만에 경영 일선... M&A·대규모 투자 급물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집행유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삼성그룹이 경영 정상화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수감된 지 353일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은 치열한 기업 간 글로벌

경쟁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약 1년간 경영 일선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사장단 인사나 주주원인 확대, 주식 액면분할 등 주요 경영 현안은 옥중에서도 꾸준히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인수합병)와 대규모 투자 등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IT(정보기술)·전자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등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M&A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자동차전장(전자장비)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뒤 급격한 M&A가 실종된 상황이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경기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반도체 호황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인해 대형 M&A에 대한 결단이 어렵다고 호소해온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글로벌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폐지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가 결국 도입 2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사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폭넓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됐지만, 별도로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확정되자 간편 송금, 생체인증 등의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빅데이터에서 홍채 인증, 지문 인증 등 생체인증에 대한 감성 반응 비율을 살펴본 결과 긍정 반응이 80%, 부정 반응이 20%로 긍정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합뉴스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